

부 고

마리아 발트라우트 MARIA WALTRAUD 수녀

ND 6257



브리짓 쉬테 Brigitte SCHÜTTE

독일,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

출 생:	1942 년 10 월 24 일	리히텐도프-가이섹커/루어
서 원:	1966 년 3 월 24 일	훼히타
사 망:	2019 년 12 월 4 일	훼히타 성 마리엔 병원
장 례:	2019 년 12 월 10 일	훼히타, 수녀원 묘지

“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.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.” (2 코린 12,9a)

마리아 발트라우트 수녀는 다음의 부고를 직접 작성했다.

“2019 년 3 월 16 일, 나, 세속명 브리짓 쉬테인, 마리아 발트라우트 수녀는 내 생애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.

1942 년 10 월 24 일, 나는 이젤론의 리히텐도프에서 태어났다. 부모님은 하인리히와 처녀명이 비겐드였던 발트라우트 쉬테이다. 내게는 빌헬름, 막달레나, 구드룬이라는 세 명의 동생이 있다.

1963 년 8 월,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리엔하인(훼히타)의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했다. 1966 년 3 월 24 일에는 훼히타에서 첫서원을 발했고 1972 년 3 월 18 일에 로마에서 종신선서를 했다.

내 현존의 한계와 약점은 ‘하느님께 이르는 관문임이 드러났다. 이 체험은 내게 일종의 ‘해방감’을 주었으며,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그 한계를 살고 계시기에 감히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.

내가 살아가려 노력해왔던 것은 이러한 확신에서였다. 하느님께서서는 내 장점과 약점, 한계와 능력을 가진,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. 나는 그런 그분을 섬기며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다.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내게 힘든 일도(예를 들어 학교) 받아들여지게 했다.

은퇴 이후에는 수 년간 봉사 활동에 임했다.(수감자들과 난민들을 돌보는 일) 나는 이 일이 무척 좋았으며 이는 나를 기쁨으로 채웠다.

내 삶에는 어두운 시기가 많이 있었다. - 그러나 쓰디쓴 어둠과 슬픔, 소외의 체험은 절망이 아니라 “하느님께만 영광을!”이라는 핵심으로 이끌어갔다. 내 삶이 가르쳐준 몇 가지 특별한 교훈도 있다. 나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. 활동안에 심취하다보면 내면의 상실에 이르게 된다. 오직 하느님만이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.

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를 두었던 것이 내 삶을 특징지었고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갔다.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게 개인적으로 십자가였다. 아버지와 나 자신을 좋으신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린다.

하느님의 말씀은 내게 양분이요 생명의 원천이며 내 생애 모든 날의 빛이었다. 그중에서도 이 구절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다.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.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.’ (2 코린 12, 9a)”

마리아 발트라우트 수녀가 자신의 삶을 맡겼던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폐색전을 통해 그 삶을 갑작스럽게 끝마치시며 당신 나라로 수녀를 불러가셨다.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던 수녀의 일과 현존에 감사하고, 이제 수녀가 하느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리라 믿는다.